

▶ 달러/원 주간 전망

• 위험회피와 맞물린 강달러... 연고점 재공략 가능성

서울, 10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중동지역의 리스크 전개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핵심 경제 지표도 소화해야하는 등 긴장감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35-1,370원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고금리 우려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에 따른 달러 강세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다.

중동 지정학 불안 확대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가 움직임이 핵심 변수로 꼽히며 대외 불확실성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전주말 유가는 약 6%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주간 기준 7.5% 급등해 지난 2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지역 불안 확산 정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이에 따른 달러 행보에 당분간 달러/원은 예민한 반응을 보일 전망이다. 원화 만의 쓸림은 아니더라도 강달러와 위험회피 심리가 서로 강하게 맞물릴 경우 하이 베타 통화로 간주되는 원화 약세 보폭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전 강한 저항선이었던 1,340원대가 강한 지지선으로 변모한 만큼 환율은 연고점이 포진해있는 1360원대를 재공략할 수 있다.

한편, 금주는 미국의 9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핵심 경제지표발표도 대기하고 있다. 이 같은 지표 결과는 현재 미국 경기 평가와 함께 달러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안전자산 선호에 더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 여건이 재차 확인될 경우 달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9월 산업생산, 소매판매를 비롯해 3분기 GDP 결과를 발표한다.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14일 국제 통화기금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쌓이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주 후반 대출우대금리도 발표한다.

국내 이벤트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매파적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만큼 금리 결정 보다는 긴축 기조에 대한 한은 스탠스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통위 회의를 전후해 한은의 외환시장 안정 의지가 더욱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당국 개입 변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감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0월16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10월17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금융감독원: 원장 국정감사 (10:00)
- ⊙ 한국은행: 2023년 8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10월18일(수)

- ⊙ 기획재정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 개시 (09:00)
- ⊙ 한국은행: BIS 'ISO 20022 도입시 공통 요구사항 보고서' 발간 (12:00)

10월19일(목)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국정감사 (10: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경제상황 평가(2023.10월)
- ⊙ 기획재정부: '23.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0월20일(금)

- ⊙ 금융감독원: 2023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국정감사 (10: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0월16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0월13-20일	03:00	미국	연방예산	9월	-78.60B	89.00B
10월13-17일		중국	FDI (YTD)	9월		-5.10%
10월16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0월	-7.00	1.90
10월17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9월	0.3%	0.6%
10월17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9월	0.0%	0.4%
10월17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0월	44	45
10월18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9월	3.2%	3.2%
10월18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9월	4.3%	4.5%
10월18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9월	4.5%	4.6%
10월18일	11:00	중국	GDP YY	3분기	4.4%	6.3%
10월18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9월	0.3%	0.5%
10월18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0월9일 주간		179.3
10월18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9월	1.455M	1.541M
10월18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9월	1.380M	1.283M
10월19일	08:50	일본	수출 YY	9월	3.1%	-0.8%
10월19일	08:50	일본	수입 YY	9월	-12.9%	-17.8%
10월19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9월		-0.1%
10월19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8월		26.85B
10월19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9일 주간	213k	209k
10월19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기업지수	10월	-6.4	-13.5
10월19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9월	3.89M	4.04M
10월20일	08:30	일본	CPI MM NSA	9월		0.3%
10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10월		3.45%
10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10월		4.2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16일 (월)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모기지은행가협회 연례컨벤션서 연설 (오후 11시30분)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NACD 웨비나서 연설 (17일 오전 5시30분)

10월17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오후 9시3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에서 팻 겔싱어 인텔 CEO와 토론 주제 (오후 9시)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하버드대 로스쿨 프로그램서 연설 (오후 10시2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부동산라운드테이블서 연설 (오후 11시45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네소타대 행사에서 강연 (18일 오전 6시)

10월18일 (수)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유럽경제금융센터 세미나 토론 참석 (19일 오전 1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킨스컬리지서 토론 주제 (19일 오전 1시30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치몬드 연방은행 주최 행사 개최사 (19일 오전 2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주최 행사서 연설 (19일 오전 4시15분)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2023년 블랙커뮤니티서 및 시상식에서 연설 (19일 오전 7시55분)

10월19일 (목)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뉴욕대 머니마켓이어 행사 참석
-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주최 18차 중앙은행 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10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뉴욕경제클럽 오찬행사 토론 참석 (20일 오전 1시)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위스콘신 상공업계 행사 참석 (20일 오전 2시20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2023년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리서치 컨퍼런스서 연설 (20일 오전 2시3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뉴스쿨 슈워츠정책연구센터에서 연설 (20일 오전 5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CFA협회 80주년 기념식서 연설 (20일 오전 6시30분)

10월20일 (금)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리스크매니지먼트협회 필라델피아 지부 회의서 연설 (오후 10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맨하탄정책연구소 추계회의 기조연설 (21일 오전 1시15분)

▶ 금주 세계 주요 이슈

⊙ 미국 어닝시즌 본격화

3분기 어닝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주요 기업 다수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다.

17일 밴코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존슨앤드존슨, 18일 테슬라와 넷플릭스, 필립모리스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7일 9월 소매판매 지표가 소비자들의 상태를 보여줄 예정이다. 8월 소매판매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예상보다 더 증가한 바 있다.

⊙ 중국 부동산의 미래성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쿠폰이자 지급 기한이 17일로 다가왔다. 이자 지급에 실패할 경우 110억달러에 달하는 전체 역외채권이 디폴트로 간주되게 된다.

중국은 최근 여러 조치들을 내놨지만 주택 판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최근 지표는 경제의 일부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18일 발표될 GDP와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지표에서 좀 더 확실한 단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각국의 선거 일정

유럽 중부 최대 경제국인 폴란드의 총선이 15일 실시됐다. 국내적으로는 생활비와 이민이 주요 이슈이나,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2024년 여름 유럽의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밖에 에콰도르에서는 15일 대선이 실시됐고, 22일에는 아르헨티나의 대선이 예정돼 있다.

⊙ 유럽 은행주

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침체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럽 은행주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지만 일부 대형 투자자들은 여전히 유럽 은행주를 고수하고 있다.

은행주는 오랫동안 주요 주가지수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여왔다. 이번 주 분기 실적을 앞두고 유럽 은행들은 8%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어, 이 기준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저렴해진 상태다.

유럽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수집한 애널리스트 전망에 따르면 유럽 은행들은 올해 조정이익이 25% 증가하고, 2024년에도 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란은행의 난제

영란은행이 수 개월째 물가 지표를 잘못 예측하고 있다. 올해 거의 모든 기간 물가는 전망치를 상회했고, 영란은행의 전망도 훨씬 웃돌았다. 그러나 8월에는 갑작스럽게 예상보다 훨씬 둔화됐는데, 많은 이들은 이 지표가 영란은행의 지난 회의 금리 동결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아직 영란은행의 2% 목표를 세 배 이상 웃돌고 있으며 성장세는 특별히 눈부신 수준이 아니다. 한편 노동시장은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기본급이 역대 최고 속도로 상승해 영란은행의 섀범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17-18일 고용 및 물가 지표에서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영란은행의 11월 회의에서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바이든, 해외 中 기업의 美 AI 칩 접근 제한 고려**

10월13일 (로이터)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해외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미국 인공지능(AI) 칩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미국은 작년에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AI 칩과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러한 조치들이 며칠 내로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지사를 통해 미국 AI 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대중 수출 제한 조치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역외 거래에 대해 증권사들 새로운 본토 고객 유치 금지키로**

홍콩, 10월12일 (로이터) -

중국은 국내 증권사와 해외 지사가 역외 거래에 대해 새로운 본토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처음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로이터가 입수한 공식 문건에 나타났다.

기존 본토 고객의 신규 투자도 투자자가 중국의 외환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모니터링" 된다.

자본 유출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해외 투자가 촉진되면서 위안화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당국은 본토 고객을 모집하는 앱과 웹사이트를 삭제해야 하는 기한을 10월 말로 정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빠른 시행... 기업금융·외환파생 직원, 부서내 순환 등 사고예방책 마련 - 금감원**

서울, 10월12일 (로이터)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한 내부통제 혁신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기업금융과 외환파생 등 관련 직원의 경우 순환근무 적용은 배제하되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계기로 장기 근무자 순환 배치를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부통제 혁신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장기 근무자를 순환 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 근무자는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동일 본점 부서에서 5년 이상 초과 근무한 직원이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T, 법률, 회계, 기업금융과 외환파생 운용은 순환근무 의무화 규제에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칭한 외환파생 운용이라는 범주와 관련해 은행권에선 외환, 채권, 스왑 등 파생상품 운용과 관련 영업 등 모든 인력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에 금감원은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혁신안 이행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 말까지로 예정했던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조정은 내년 말까지로 앞당겼고 2027년말까지로 예정했던 준법감시부서 인력확대 계획도 2025년 말까지로 조정했다.

금감원은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하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게 적발되고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까지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금감원은 당초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자도 순환근무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자 금감원은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순환근무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금감원은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직원에 대해 특별 명령휴가제도 도입, 부서내 담당업무·기업 등 업무 순환, 영업(front)과 자금결제(back)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규 기자; 편집 문윤아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